

“2026 시즌 KIA 포수 신명승 알리겠다”



진흥고 졸업·2022년 입단…지난해 군복무 마쳐
타케시 코치 맞춤형 지도…수비 등 경쟁력 쌓기
“정식 번호 받고 고향 집서 출퇴근하고 싶어요”

준비한 대로 시즌을 마무리한 KIA 타이거즈의 포수 신명승이 챔피언스필드에서 1군 꿈을 꾀다.

포스트 시즌에서 탈락한 KIA는 울산과 광주에서 투트랙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신에 선수들 중심으로 울산에서 KBO 가을리그 실전이 시작됐고, 광주에서는 1군 선수단 위주로 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14일 광주로 새로 합류한 이들이 있다. 투수 김건국·한재승과 포수 신명승이 광주에서 시즌을 돌아보고 새출발을 준비한다. 특히 신명승은 타케시 코치의 맞춤형 지도로 올 시즌 분위기를 이어가게 된다.

신명승은 진흥고를 졸업하고 2022년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신예 포수다. 일찍 군복무까지 마친 '예비역' 신명승에게 2025년은 사실상 복귀 시즌이다. 지난해 여름 전역 뒤 퓨처스리그 19경기에 나왔던 신명승은 27타수 5안타(2홈런), 0.185의 타율에 그쳤다. 올 시즌에는 35경기에서 96타석을 소화했고 74타수 23안타(5홈런), 0.311의 타율을 기록했다.

신명승은 “준비했던 것 그대로 나온 것 같다. 올

시즌 목표했던 게 OPS랑 홈런 개수였는데, 2군이지만 OPS(1.04)도 올라왔고 홈런 개수도 늘었다. 비시즌 때 잘 준비했던 게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타격에서 만족감을 보였지만 포수에게 중요한 부분은 수비다. 시즌 중반에는 타케시 배터리 코치와 경기를 풀어가기도 했던 신명승은 ‘정확성’을 이야기했다.

신명승은 “타케시 코치님께서 포수는 정확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공을 던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예년에는 다급한 경우가 많아서 송구나 캐칭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코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잡는 것을 우선시하라고 하셔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정확하게 공을 잡고 던지고 그랬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신명승은 10월에도 타케시 코치와 중점적으로 수비 훈련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생각이다.

신명승은 “타케시 코치님과 오전에 수비 연습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경기 운영이나, 공 던지는 자세 등을 많이 물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기본 좋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기대감으로 또 다른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포수라는 포지션은 ‘인내’가 필요한 자리다. 타자로서 역할도 해야 하고 투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한다. 또 자리가 한정된, 가장 변화가 적은 포지션이기도 하다.

올 시즌에도 KIA는 김태균과 한준수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갔고, 한승택과 주효상이 1군에서 각각 15경기와 8경기에 나오는 데 그쳤다.

신명승은 “포수는 경기를 많이 하면서 경험치가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되는 자리다.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다. 투수하고도 맞춰야 하고, 벤치에서도 푸시가 들어오기도 한다. 투수들이 잘 안되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 자리다”라면서도 “생각하던 대로 경기가 끝나면 기분 좋다. 불배합이 잘 되고 무실점 경기, 점수를 적게 주고 이기면 좋다. 포수들만 아는 뿌듯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수들은 부상이 없으면 불박이다. 밑에 있는 선수들도 기회를 얻기 위해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정말 인내하는 시간이 길다. 도루 저지 능력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 포수를 떠나서 타격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내년 시즌에는 (정식)번호를 바꿀겠다.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싶다. 집이 챔피언스필드에서 5분 거리다”라고 웃으면서 올 시즌을 발판 삼아 2026시즌 기회를 노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포수 신명승이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월드컵 이변’



14일 열린 에스와티니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 홈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국기를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52만 카보베르데, 사상 첫 본선 진출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인구 52만여명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카보베르데 프리아의 카보베르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에스와티니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10차전)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이로써 카보베르데는 7승 2무 1패, 승점 23으로, 이날 앙골라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0-0으로 비긴 카메룬(승점 19·5승 4무 1패)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해 북중미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본선 참가국이 32개에서 48개로 늘어난 북중미 월드컵의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6개국씩 9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위가 본선에 직행한다.

이후 2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벌이는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한 팀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나서 마지막으로 본선행에 도전하게 된다.

카보베르데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6번째로 북중미행을 확정 지었다.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카보베르데는 15개의 섬으로 이뤄진 군도 국가다. 15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된 이래 500여년간 식민지로 있다가 1975년 독립했다.

국토 면적은 4033㎢로 한국의 25분의 1 정도이

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구는 52만5000명에 약간 못 미친다.

카보베르데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축구 열기만큼은 여느 강국 못지않다.

1986년 FIFA에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부터 월드컵 예선에 참가해 본선 진출에 도전해왔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대항전인 네이션스컵에서는 처음 출전한 2013년에 8강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고, 2023년 대회에서도 다시 8강까지 나아갔다. 2000년에 182위까지 떨어졌던 FIFA 랭킹은 2014년에 27위까지 올랐고, 현재는 70위에 자리하고 있다.

인구 약 14억명의 중국(94위)보다도 높다.

/연합뉴스

‘홈런 3방’ 시애틀 2연승…WS ‘성큼’

ALCS 2차전 토론토에 10-3

시애틀 매리너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승제)에서 원정 2연승을 거두고 사상 첫 월드시리즈 진출 가능성을 부풀렸다.

시애틀은 1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5 MLB 포스트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ALCS 2차전에서 10-3으로 이겼다.

전날 1차전에서 3-1로 승리한 시애틀은 원정 1, 2차전을 쓸어 담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두 팀의 3차전은 16일 시애틀 홈 경기로 펼쳐진다.

시애틀은 3점 홈런 2방과 투런포 하나 등 대포 3대를 발사하며 7점 차 대승을 거뒀다.

1977년 창단한 시애틀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적이 없다.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도 1995년과 2000년, 2001년과 올해 두 번에 전부다.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결과는 1995년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 2승 4패로 졌고, 2000년과 2001년에는 연달아 뉴욕 양키스를 만나 2승 4패, 1승 4패로 무릎을 꿇었다.

토론토는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 월드시리즈에 올라가 두 번 모두 우승했다.

“디펜딩 챔피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1차전에서 짜릿한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다저스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पै밀리 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NLCS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챔피언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에 청신호를 켜다.

다저스 김해성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두 팀의 2차전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KLPGA 4승 선착 주인공은 누구?

홍정민·방신실·이예원 등 경쟁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4승 고지 선착을 놓고 홍정민과 방신실, 이예원의 경쟁이 뜨겁다.

홍정민이 12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끝난 K-푸드 놀무·화미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에서 우승하면서 올해 시즌 3승을 거둔 선수는 홍정민과 방신실, 이예원 3명으로 늘었다.

올해 4개 대회가 남은 가운데 과연 4승 고지에 오르는 선수가 나올 것인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홍정민과 방신실, 이예원은 16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6605야드)에서 개막하는 상상인·환경 와우넷오픈(총상금 12억원)에 나란히 출전한다.

이들 세 명은 다승 외에 다른 개인 타이틀을 놓고도 상위권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상금은 홍정민이 12억9401만원으로 1위, 방

신실이 11억942만원으로 4위, 이예원은 9억 6726만원으로 5위다.

대상 포인트는 홍정민이 524점으로 2위, 방신실 3위(490점), 이예원 5위(408점)다.

상금 2위는 12억8735만원의 노승희, 대상 1위는 624점의 유현조다.

홍정민은 상상인·환경 와우넷오픈 개막을 앞두고 “매 샷 집중하며 침착하게 2주 연속 우승과 통산 첫 시즌 4승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올해 우승은 9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한 차례지만 대상 포인트와 평균 타수 1위, 상금 3위를 달리는 유현조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다. 유현조는 “아이언 샷 정확도가 아쉽지만, 전체적인 샷감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 우승 경쟁을 펼치는 것이 목표”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박보경은 3월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에도 도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